

專門職業性이 강조되어야 한다

金 信 福

(서울大 行政大學院)

高等教育理念상의 논쟁 거리들

高等教育的 理念, 즉 대학에서의 교육이 과연 무엇을 실현하는 데 궁극적인 價値와 目的을 둘 것인가에 관해서는 끊임 없는 論爭이 있어 왔으며 시대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 그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例를 들어 본다면, 첫째로 高等教育이 소수의 엘리트教育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大衆教育에 중점을 둘 것인가, 둘째로, 고등교육에 있어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어느 쪽에 力點을 둘 것인가, 셋째로 고등교육에서 教授(teaching)와 研究 중 어떤 機能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넷째로 고등교육 人口의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 대학교육을 맡고자 하는 社會的 要求(social demand)와 산업발전에 필요로 하는 人力需要(manpower requirement) 중

에서 어떤 기준이 重視되어야 하는가, 다섯째로 고등교육에서 학문의 自由와 國家利益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에 무엇이 優先해야 하는가 등의 논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도 理念上的 갈등을 가져올 만한 主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번 誌上討論에서의 主題인 대학교육의 學問性(academism)과 專門職業性(professionalism) 문제도 대표적인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위에서 例示한 고등교육 이념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소된 상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論者에 따라 다양한 視角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쳐 다른 한쪽을 무시하는 것은 실제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오히려 지양해야 할 行態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논쟁과 갈등은 하나의 理念을 택하고 그와 대립되는 理念을 폐기함

으로써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兩者間의 상대적인 비중과 優先順位를 여하히 조절할 것인가 하는 調和의 문제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카데미즘과 프로페셔널리즘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에 있어서 어느 한쪽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나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本稿의 論旨가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比重面에서이지 아카데미즘을 止揚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專門職業性的 概念과 要件

여기서 專門職業性이라고 번역한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은 고등교육이 專門職(professions)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培養에 力點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디 프로페셔널리즘은 專門職

業人으로서의 矜持와 자세 또는 根性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專門職(profession)과 非專門職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적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서 첫째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 및 專門的 識見을 필요로 하는 직업, 둘째로 장기간의 집중적인 專門敎育과 훈련 등 準備를 필요로 하는 직업, 셋째로 사회를 위한 利他的 奉仕를 중요시하는 직업, 넷째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스스로 意思決定權과 責任을 지는 고도의 自律性이 요구되는 직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상당히 抽象的이기 때문에 전문직의 包括範圍와 한계는 視角에 따라 그리고 時代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産業構造가 高度化됨에 따라 職種구조 자체도 날로 細分化·專門化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專門職種의 영역 역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機能은 여러 가지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專門職業人을 양성·배출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흔히 職業敎育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직종에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지식과 기술을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습득시키는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본래 의미의 직업교육은 훨씬 넓은 개념이다. 즉 職業世界를 탐색하여 자기의 適性和 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태도·가치관 등을 啓發해 가는 모든 형태의 公式 또는 非公式(nonformal)교육을 包括하는 영역인 것이다.

오늘날의 직업교육은 어떠한 분야의 세부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 所期의 목적을 거두기 어렵다. 산업 발전의 추세가 加速化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직업교육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숙련된 한 가지 기술보다는 轉移效果(transfer effect)가 높은 핵심적이고 광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激變하는 需要에 應對성 있게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하겠다. 專攻에 관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지식의 暗記나 손 끝의 기술을 익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기본적인 原理의 理解, 應用力과 分析力, 창조적 능력 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專門職業敎育이 결코 산업계에서의 技能工 양성을 위한 研曆訓練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폭 넓은 전문지식과 아울러 專門職業人으로서의 자세가 확립되도록 하는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직은 높은 自律性이 부여되고 사회봉사적인 태도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職業倫理(work ethic)를 확립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대학의 敎育課程 편성에 있어 지나친 學科의 細分化를 지양

하고 廣域커리큘럼을 운영하거나 공통적인 기초과정 및 교양과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학문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專門職敎育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歷史的 背景과 最近 傾向

근대적 형태의 대학은 中世紀에 설립된 파리大學과 볼로냐大學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대학들은 宗教的 성격이 강하였으나 法律家, 宗教家, 醫師 등을 배출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초기의 대학에서는 文法, 修辭學, 論理學 등을 가르쳤고 후에 算術, 天文學, 幾何와 音樂 등을 추가하여 모두 7大 自由科目을 이수하면 敎養人의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 보았다. 그 후에 文藝復興과 宗教改革을 계기로 古典文學과 예술, 그리고 物理學 등 科學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설립된 Oxford 대학이나 Cambridge 대학들의 교육이념 역시 職業準備的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식에 의한 이른바 紳士道의 함양에 있었다. 대학의 입학생은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에 국한되었으며 古典과 文學 등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英國型의 大學理念은 美國에서 최초로 설립된 Harvard 大學(1636), William and Mary College(1693), Yale 大學 등에도 대부분 그대로 傳授되었다.

그러나 1776년 美國의 獨立을 계기로 새로운 나라를 이룩

어 갈 人材들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특히 공업과 농업 분야의 기술자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1862년에 모릴법(Morrill Act)이 제정되었는데 主要骨子는 각 州에 농업과 공업 분야를 가르치는 州立大學을 하나 이상 설립하도록 하고 그 기본자산으로서 國有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각 州立大學들은 직업교육에 力點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高等教育의 門戶도 대폭 확대되었다.

대학에서의 이와 같은 專門職業教育化 경향은 기존의 學問中心의 전통과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州立大學 내부에서조차 직업교육 분야를 輕視하는 풍조가 대두되었으며 아직도 그러한 갈등은 완전히 解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美國에서는 英國과 달리 就業 등에 있어 實用主義的인 경향이 강하여 교육에서도 專門性이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직업준비교육은 결코 소홀히 될 수 없었다. 미국의 公職 採用制度는 職位分類別(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라 매우 細分化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民間企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산업구조의 高度化 및 專門化 추세로 대학교육에서 직업준비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기회가 종래와 같이 일부 엘리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適

齡人口의 半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고등교육을 받게 된 時點에 이르게 되면서 學問性(academism)만을 고집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기능도 高等學校를 갓 졸업한 신입생들을 교육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는 현직자들에 대한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에 이르기까지 확대됨으로써 대학에서의 專門職業性은 한층 강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美國에서뿐 아니라 象牙塔的인 대학의 學問性을 고집해 오던 歐美諸國에서도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英國의 경우에 1963년에 발표된 로빈스報告書(Robbins Report)에서 고등교육기회의 비폭적인 擴大를 천명한 이후 傳統的인 대학의 體制는 이른바 二元化(binary line)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大量교육을 통한 專門職業性을 강조하는 새로운 大學(new university)들이 잇달아 설립되었고 技術專門大學(polytechnic)들도 계속 확충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1968년의 教育改革令을 비롯해서 고등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프랑스에는 일반 大學校(université) 외에도 精銳 專門職을 양성하기 위한 高等專門學校(Gramoles Ecoles)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다. 國立 高等師範學校(Ecole Normale Superieures), 國立理工學校(Ecole Polytechnique), 國立

建築學校(Ecole Nationale des ponts et Chaussées), 國立行政學校(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등이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또한 技術專門大學(Instututs Universitaire de Technology)들이 설립되어 工學, 정보과학, 행정학, 제정학 등의 분야에 전문 직업인들을 양성해 내고 있다. 프랑스의 高等教育體制는 學問性一邊의 單線型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청에 부응하여 다양한 專門職業人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들을 설립·운영함으로써 복잡한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찍부터 近代의 형태의 대학들을 발전시켜 온 歐美先進國에서도 종래의 學問性 일변도의 교육이념으로부터,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및 산업인력 수요의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專門職業性을 점차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목표와 내용을 개편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슈스터(Jack H. Schuster) 교수가 최근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論爭點(issue)은 專門職業教育이 과연 대학에서 필요한가보다는 一般教育(liberal education)이 대학에서 제 位置를 차지할 수 있는느냐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專門職業教育 강화의 當爲性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설립된 歷史도 日淺하거니와 教育理念 자체부터 混沌을 거듭해 왔다.

教育法에 의하면 大學教育의 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理論과 그 廣汎하고 精緻한 응용방법을 教授·研究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너무 抽象的이고 高踏的이어서 교육의 실제 방향을 설정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理念과 實際의 乖離現狀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교육이 學問性과 專門職業性 중 어느 쪽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이념상으로는 물론 실제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儒敎의 전통과 선비정신의 영향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종래의 學問中心의 思考를 탈피하지 못한 채, 專門職業教育을 강조하는 時代的 潮流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핵심은 역시 과거의 文理大로 대표되는 기초학문 분야라는 傳統的인 通念을 拂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輕視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직업교육의 充實化를 위해서도 기초학문 발전이 필수적인 要件임은 再言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기초학문 분야와 응용학문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며 전문직업교육이라고 해서 學問的 접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더욱이나 아니다. 오히려 專門職일수록 학문

적 자세와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高度産業社會의 到來와 더불어 대학교육에 있어서 專門職業性은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西紀 2千年까지의 長期展望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GNP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구조 역시 계속해서 高度化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生命工學, 新素材工業 등 頭腦 및 知識集約型 尖端産業 분야와 資源節約的이고 技術集約的인 산업 분야가 발달될 것이며, 금융·보험·유통 등 종래의 서어비스산업분야나 餘暇産業, 엔지니어링, 컨설팅(consulting) 서어비스 등 이른바 소프트(soft)산업이 현저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고등교육을 요하는 專門人力의 需要도 加速的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고급 인력을 차질 없이 양성·공급하는데 고등교육이 中樞的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교육의 목적과 내용 면에서는 그와 같은 현실적인 요청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80년대 이후 우리의 高等教育人口는 수년 사이에 거의 倍로 증가하였으며 작년부턴 졸업생의 배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50년대에 경험했던 高等失業者의 量産 현상이 再現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필요한 분야의 쓸 만한人材는 오히려 찾기 어렵다는 이른바 過剩 속의 不足(shortage among surplus)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人力需要보다도 누적된 再修生 등 대학을 가려고 하는 社會的 需要를 기준으로 大學定員을 査定한 데서 초래된 需給上의 不均衡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대학교육의 내용이나 質의 수준 면에서 산업사회에 요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데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고등교육이 專門職業人의 양성이라는 대학의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自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0년대에 하바드大學 總長이었던 Clark Kerr는 「大學教育의 有用性」이라는 著書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즉 고등교육의 量的 成長, 學術內容의 전환, 社會生活과의 連繫 강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고등교육에 이미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더욱 助長되어야 할 변화의 方向이라고 판단된다.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위한 學問中心의 象牙塔의인 자세에서 벗어나 현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高度化에 부응하여 교육내용의 職業專門性을 높이고 社會的 요청에 부응하는 有用性 높은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